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공지영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파견기간	9/2~12/13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의 지하철 노선 중 하나인 캐나다라인의 langara 49th station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컬리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오밀조밀 필요한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은 최고의 디자인을 가진 건물이고요. 보통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A빌딩을 이용하게 됩니다. A빌딩은 도매스틱 학생들도 사용합니다. 이곳엔 카페테리아(매점, 식당 등)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초기에 지어진 빌딩이라 다른 건물과는 내부적으로 아주 조금 차이가 있으나 눈에 뵈 정도는 아닙니다. 교실은 모두다 같은 크기를 가지진 않지만 15명 정도의 학생이 사용하기에 넉넉합니다.
수업	한 반에는 보통 15-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국이고 소수의 한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학생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생님은 2분이시고요. 주5회 수업으로 하루는 두 분이, 하루는 한 분이, 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수업은 두 파트로 8:30-12:30 또는 12:30-16:30으로 나뉘집니다.
프로그램 운영	매일 많은 과제가 주어지고 한 세션에 프로젝트가 1 또는 2개가 주어집니다. 보통 수업은 서로 논의하는 discussion으로 이루어지고요, 주마다 reading, listening, assessment가 있습니다. 70%이상이어야 통과가 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있을 당시에는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도 겨울엔 춥습니다. 가기 전, 인터넷 서핑으로 밴쿠버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하다. 라는 말만 믿고 얇은 옷만 챙겼다가 피 났습니다. 캐나다 구스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옵니다. 우산 써도 맞아서 레인부츠나 레인코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전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일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기준에서 밴쿠버는 정말 안전합니다. 가끔 자정 넘어서 귀가했지만 위험한 일 하나 없었네요. 다만 학교 근처에 중동 지역 사람들이 가끔 다니는데 대부분은 착하지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시가 답입니다.
숙소	홈스테이 홈스테이가정이 차이니즈 캐네디언이었기 때문에 음식은 대부분 중국음식 이었습니다. 가끔씩 캐나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물론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항상 점심을 싸주셨고 아침과 저녁도 제공해주셨습니다. 간식도 제공해주셨습니다.
식사	홈스테이 항상 점심을 싸주셨고 아침과 저녁도 제공해주셨습니다. 간식도 제공해주셨습니다.
교통	저는 학교에서 집에 2km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론 20분, 느린 걸음으론 30분이 걸렸습니다.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 걸어 다녔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600,000	저가항공이용-성수기
Fees	없음	
보험료	200,000	LIG 유학생보험
숙소	매달 750달러	총 2700달러
식비	120만원	외식이 잦았음, 군것질도 잦음
교통비	25만원	페어세이버로 사용, 따로 먼스리패스를 구매하지는 않음.
책값	3만원	
기타1	여행 100	
합계	총 600만원 정도 소비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이 여유가 된다면 샴푸, 린스 같은 건 꼭 사오세요. 한국보다 비쌉니다.
선글라스 챙기세요. 햇빛강해요. 밴쿠버는 비가 많이옵니다. 날씨 좋을 땐 꼭 나가
노세요! 학기 중엔 바쁘니 미리미리 놀러 다니시길 바라요. 동아리 활동하세요. 10명중
저만 동아리에 가입했지만, 훨씬 좋은 친구들 만날 기회 많았습니다.
학교메일 자주 확인하세요. 이벤트 많으니 다 참여하세요. 득이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을 계기로 제 영어 실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해보다는
추측을 하려 하고, 리스닝 스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선에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제
결과에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공포증이 사라지고 이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랑가라에 오기 전 무작정 걱정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닥치면
안될 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할 바엔 일단 부딪혀 보세요. 틀린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틀려야 잘못된 점을 알고, 알아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동문서답을 하던 제가 이젠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일상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비록 4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좋은 경험 좋은 추억만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학기가 끝나자마자 미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여행이지만,
계획도 없이 일단 가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와있습니다. 여행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만 같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네요. 일단 도전하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탠리파크에서 바라본 벤쿠버 다운타운



UBC에서 찍은 사진



첫세션 반 단체사진



할로윈 파티에 홈스테이 가족과 만든 컵케익



학교근처 선셋파크



땡스기빙데이 디너초대 단체사진